

ECHO^{#06}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vol.6

총괄 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Design

이승민 Lee seung min

손현아 Sohn hyun a

권재승 Kwon jae seung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유미 Yunyu mi

조은진 Jo eun jin

김나영 Kim na young

나예진 Naye jin

공유나 Kongyu na

우혜정 Woo hye jung

VOL6 CONTENTS :

E

05 도망칠 수 있는 용기

휴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08 비망록

휴학 이야기

11 새내기들의 연휴 보내는 방법

17학번 학우들의 5월 황금연휴

C

15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성소수자 이야기

H

18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

DUBS를 소개합니다

20 대구대학교 비호응원단

역사깊은 창단 22년 비호응원단을 소개합니다

22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국민이 되려면

대선에 대한 생각

23 모태솔로가 친구요?

모태솔로의 익명 인터뷰

O

26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안나가?

피크닉 장소 추천

30 올리브영 알바생이 추천하는 선크림

다가오는 여름 준비하는 방법

33 언제까지 벚꽃엔딩만 들을거야

재즈 추천





Engaging



도망칠 수 있는 용기
휴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게 다 설레고 신기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나의 스무살은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전공수업, 적응하기 힘든 대학생활, 아르바이트 등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돌아켜봤을 때는 처음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면 동기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수업에 자주 결석하기 시작했고, 선배님·교수님과의 교류도 없이 학과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던 나는 1년이 끝나갈 즈음에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휴학을 생각했다. 아니, 사실은 휴학을 빙자한 자퇴에 대한 결심이었다.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었고 오직 이곳을 떠나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고 종강과 동시에 휴학신청을 했다. 그 후 백화점에서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일하던 나는 500 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망설임 없이 캐나다로 떠났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는 물론이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전혀 없었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장소에서는 모든 게 새로웠고, 외국인과 직접 말해보기 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쇼핑을 하던, 식당을 가든 사전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이 없었고 버스 타는 것마저 어려웠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방송으로 정류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 아저씨가 직접 street 이름을 말해주는데, 나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른 동네를 구경하는 것이 일쑤였다.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는 것부터, 팁 문화에 적응하는 것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인분께서 컵과 콘 중 어디에 담을 것인지 물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예스!” 라고 대답했던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때는 그것조차도 재밌었다.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하는 척했었고, 펍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들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친구가 되기도 했다. 애초에 공부도 아니라 한국에서의 똑같은 생활로부터의 탈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알차게 놀았다. 직원들이 알아볼 정도로 펍과 클럽에 꾸준히 다녔고, 어학당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첫째 주는 일본, 둘째 주는 멕시코, 셋째 주는 브라질. 각 나라 친구들을 모아 그 나라 술 게임도 하고 한국음식도 만들어 주며 최선을 다해서 놀았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이 술버릇이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늘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긍정적인 말을 듣다보니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 결과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더라.

그맘때에 LA부터 시애틀까지 미국 서부 여행을 혼자 계획하고 다녀왔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꽤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겼다. 그러던 중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삼촌을 만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계획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 순간이었다. 캐나다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할 수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매일 일기장에 쓰며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떠난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나는 없었다. 나의 스무살을 알고 있는 윤경이와 현아, 다른 친구들은 나를 보며 밝고 긍정적으로 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좋다고 말한다. 지금은 1학년 때는 상상해본 적도 없던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교내 대회에 나가기도 했으며, 이번엔 학교의 국제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의 나는 가까운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을 받으며 캐나다에서 계획했던 일을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친구들이 토익을 준비하니 따라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계획 없는 휴학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억지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지난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현재의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믿고 행동한다면 적어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그게 현재로부터의 도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비망록

본 내용에 앞서, 난 수많은 진로 고민을 떠안은 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그저 졸업생들이 만들어 놓은 취업 루트에 따라 원치 않는 곳으로 목줄이 매여진 채 끌려갈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난

휴학을

결심했다.

1 휴학신청

세상에 재밌는 일이 많다지만, 휴학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일인지 몰랐다. 친구들 모두 다음 학기 시간표 검색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미련 없이 휴학신청을 하다니. 하지만 전공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1년과 나의 1년은 똑같이 보람차야 할 것이다. 계획표를 짜기 위해 빈 연습장을 펼쳤다. '휴학계획', 네 글자만 크게 적어놓은 채 일단 나중으로 미뤄버렸다.

2 휴학1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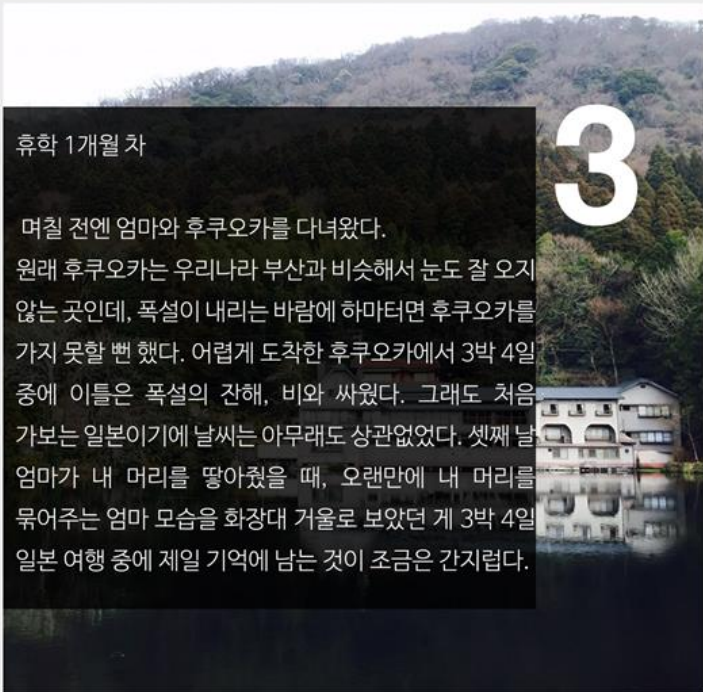
아무래도 휴학했을 때엔 여행이 최고인 것 같다. 학기 중엔 과제와 시험, 아르바이트 때문에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꿴으니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야 할 것 같았다. 수능 치고 나서 엄마와 해안도로를 따라 전국 일주를 했었다. 이번엔 엄마와 일본을 다녀오고 싶었다. 어제 펼쳐놓고 아무것도 적지 못한 빈 곳에 크게 '일본 여행'을 적었다. 당장 일본 여행을 했었던 친구들에게 여행 장소와 맛집을 물었다. 오사카는 가기 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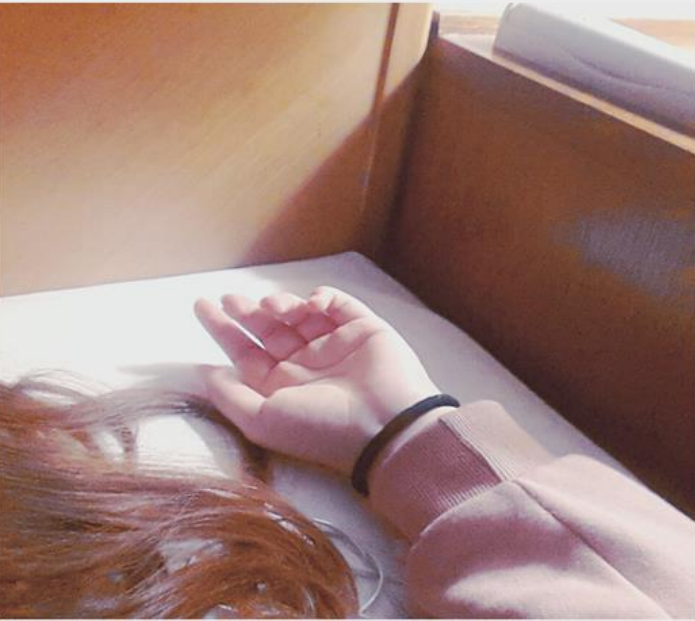
휴학 1개월 차

며칠 전엔 엄마와 후쿠오카를 다녀왔다.

원래 후쿠오카는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해서 눈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후쿠오카를 가지 못할 뻔 했다. 어렵게 도착한 후쿠오카에서 3박 4일 중에 이들은 폭설의 잔해, 비와 싸웠다. 그래도 처음 가보는 일본이기에 날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셋째 날 엄마가 내 머리를 깎아줬을 때, 오랜만에 내 머리를 묶어주는 엄마 모습을 화장대 거울로 보았던 게 3박 4일 일본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조금은 간지럽다.

3





4 휴학 2개월 차

휴학 후 맞는 봄이다. 친한 동기들이 나 없이 함께 찍은 벚꽃 사진을 보냈다. 2년을 함께 보던 단과대 건물 벚꽃인데, 그 자리에 나만 없었다. 조금은 서글퍼졌지만, 그래도 재학생이 아니라고 위로하며 한국사 공부를 했다. 사실, 아빠와 거래를 했다. 공무원 시험을 한 번 준비한다면 휴학을 허락해준다고. 공무원 시험은 곧 죽어도 싶었지만, 휴학은 너무 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 중이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다.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사는 곁핍기였다. 내 생애 한국사와 국어를 이렇게 깊게 공부하긴 처음이다. 살면서 행정법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다. 먼 훗날 노량진을 어떤 이유라도 가게 된다면, 그 거리에서 호탕하게 웃지 못할 것 같다. 얼른 6월이 오면 좋겠다.

5 휴학 3개월 차

난 지금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다. 언니 집에서 살며 조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 전까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낮 조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덜컥 깨닫고 말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 후로 우울해졌다.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것도 슬프고, 날 좋은 날에 조카와 EBS를 보는 것도 슬프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내 모습에 더욱 슬프고 화가 났다. 언니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나를 보며 무슨 일 있냐며 물었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이대로 이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6 휴학 5개월 차

7월, 여름이다. 지난달 공무원 시험을 쳤고, 일주일만은 너무 흥분한 기분에 매일 웃고 있었던 것 같다. 새삼 달력을 보니 휴학한 지 5개월에 접어들고 있었다. 4개월을 공무원과 육아에만 감정 소모가 컸다. 이런 나에게 상을 주고 싶었다. 매일 밤, 맥주 한 캔과 영화 한 편을 보고 잠이 드는 것보다 더 큰 상을 주고 싶었다. 때마침,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주도도 함께 가자고 했다. 이번 여름에 가기엔 늦은 감이 있었기에 가을에 가기로 하고 먹던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었다. 선풍기 바람에 조금 녹아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7 휴학 6개월 차

온종일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건 세상 최고의 오락이 아닐까.

휴학 7개월 차

부쩍 잠이 많아졌다. 조카를 등원시키면 내내 잠만 자다가 하원 시간에 맞춰 일어난다. 밥도 잘 안 먹는다. 따뜻한 날씨에 감기에 걸렸다. 면역력이 바닥난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러 갔다. 운동하는 법을 잘 몰라서 러닝머신만 3시간 할까 봐 댄스반에 등록했다. 뭐랄까, 댄스는 유산소와 근력을 결합한 운동이니까... 혹시 있을 아주머니들의 텃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남뉘 성비가 반반이기에 마음 놓고 댄스. 나만 안무를 몰라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형편없었다.

8

9

휴학 9개월 차

10월에 제주도를 가서 11월에 돌아왔다. (10월 30일에 가서 11월 2일에 왔다)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으로 다녀온 제주도는 여유롭고 따뜻한 곳이었다. 자동차 렌트를 하지 못해서 두박이 여행을 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예약하기 위해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버스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내가 부지런해질 수 있는 여행은 처음이었다. 온종일 걷고, 버스를 타면서 보는 제주도 풍경은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 대다수였지만, 마을 초등학교와 버스 기사님의 친밀한 대화와 낯선 여행객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주민들, 그리고 집집이 마당에 자라난 굴나무들이 최고의 풍경이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서성이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공방 가게에 주인이 준 굴 하나가 그려졌다. 생각해보니 내가 여행 간 2박 3일 동안 이들이 비가 내렸다. 같이 간 친구와 다니면 항상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 친구와 다음 여행은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10

휴학 10개월 차

휴학 3개월 차

여전히 누워있다. 이전 누워있는 것도 무료하고 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진다. 애초에 휴학할 때 하고 싶었던 많은 일이 시도도 못한 채 지워지고 있었다. 보컬 학원 취미반에 등록하려다가 결국 안 했다. 미술 학원에 다니려다 늦은 것 같아서 관뒀다. 일본어 공부를 하려다가 결국 안 했다. 아르바이트해볼까 하다가 수험생들에게 밀려 포기했다. 헬스는 진작 제주도 이후로 등록 연장도 안 했다. 도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진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다. 속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슬퍼져서 그냥 웅크린 채 눈을 감아버렸다.

11

휴학 10개월 차

2017년이 되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다.



휴학 11개월 차

복학 신청을 해야 해서 컴퓨터를 켜다. 막상 신청 버튼이 눈에 보이니 마우스 움직이기가 망설여진다. 딸깍, 휴학과 복학이 너무 쉬워서 허무하다. 복학신청이 완료되자마자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벅차서 시작했던 휴학이었다. 아쉬움만 남은 1년이었다. 생각보다 나는 더욱 겁쟁이였고, 게을렀으며, 족대가 없는 사람이었다. 남들은 보이는 성과가 쌓이는 휴학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휴학이어서 사실 뭐라 들려줄 말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1년 동안 휴학했는데 뭐 했어? 물어본다면 웃으면서 '난 계속 누워있었어!', 라 말할 것이다. 끝없는 자기 비하와 진절머리 나는 나태함과 용기없이 포기해버린 많은 일을 솔직히 말해주기엔, 난 나 자신을 아끼는 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아무리 내 1년이 허무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내 1년은 없었던 존재가 되어나에게조차 지워질 것이다. 이런 휴학을 보내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이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휴학은 말 그대로 현재 전공 공부를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9 월쯤, 친한 동기에게 나의 이런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준 말을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아무런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은 없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경험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겁먹지 말자. 자신을 너무 책임하지 말자. 당신의 선택은 결국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 된다.

12

새내기들의 연휴를 보내는 방법

꿈 같았던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연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나는 17학번 3명의 동기들에게 어떻게 연휴를 보냈냐고 질문을 던졌다.

새내기들의 연휴를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연휴 또한 돌아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기분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함만이 가득했던 나의 연휴’ 17학번 오주영

5월4일 목요일

오늘은 나의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간 날! 두 달 만에 온 제주는 구름 낀 흐림이었다. 아나나 다들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놀았던 친구 두 명이랑 치킨도 먹고 오랜만에 만나 수도 또 떨었다. 한 친구는 연애를 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친구는 외로움에 허덕이는 중이었다... 너무나 무반가웠고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지도 않았고 재밌었다. 그냥 고3때 공부하다가 놀던 느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집에 갈 때까지 비가 왔다.

5월5일 금요일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날씨는 그저 그랬지만 확실한 건 대구보다 시원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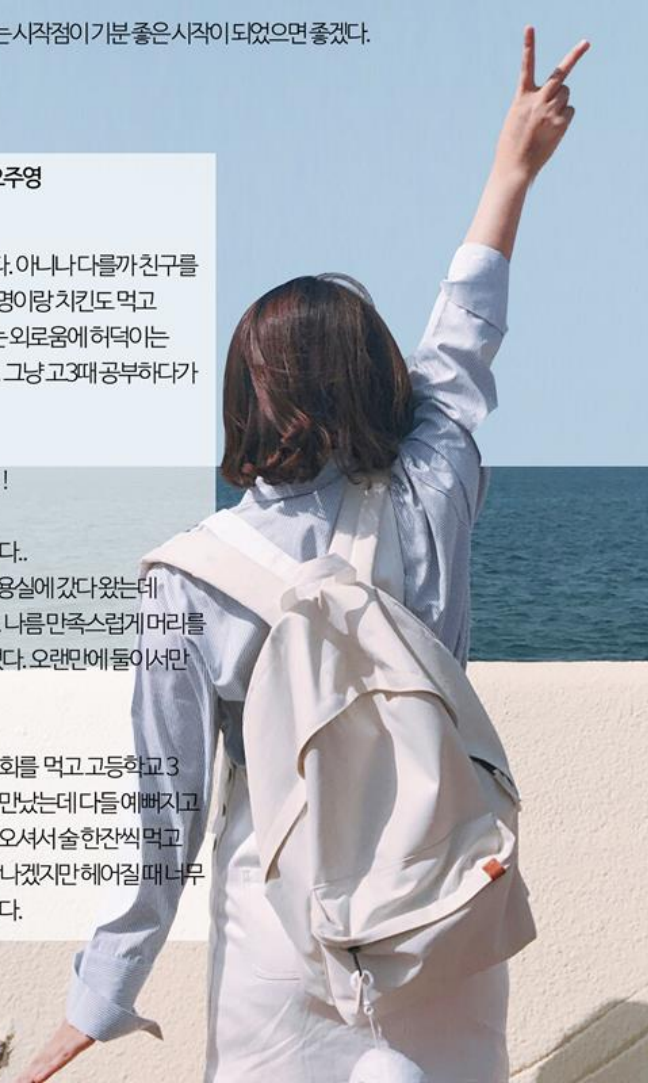
5월6일 토요일

오전에는 일어나서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 자주 연락을 드리지 않아 섭섭해 하셨다.

또 학교 가서 동기들한테 나눠줄 감귤타르트와 감귤초콜릿을 샀다. 오후에는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많이 상해서 파마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많이 자르고 겨우 파마를 했다. 나름 만족스럽게 머리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놀았던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녹차빙수까지 먹었다. 오랜만에 돌아서만 논 건데 어색함 없이 너무 즐거웠다.

5월7일 일요일

제주도에 와서 내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다. 친한 친구랑 핏집에 가서 화국수랑 물회를 먹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빈이었던 친구들을 만났다. 대구로 치면 동성로와 비슷한 시내에서 만났는데 다들 예뻐지고 너무 반가웠다. 재수하는 친구도 나와줘서 고맷다. 고등학교 때 담당 선생님도 오셔서 술 한잔씩 먹고 대학 이야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다. 동창회하는 기분이었다. 다들 방학 때 다시 만나겠지만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고 모두가 잘 지내고 진심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연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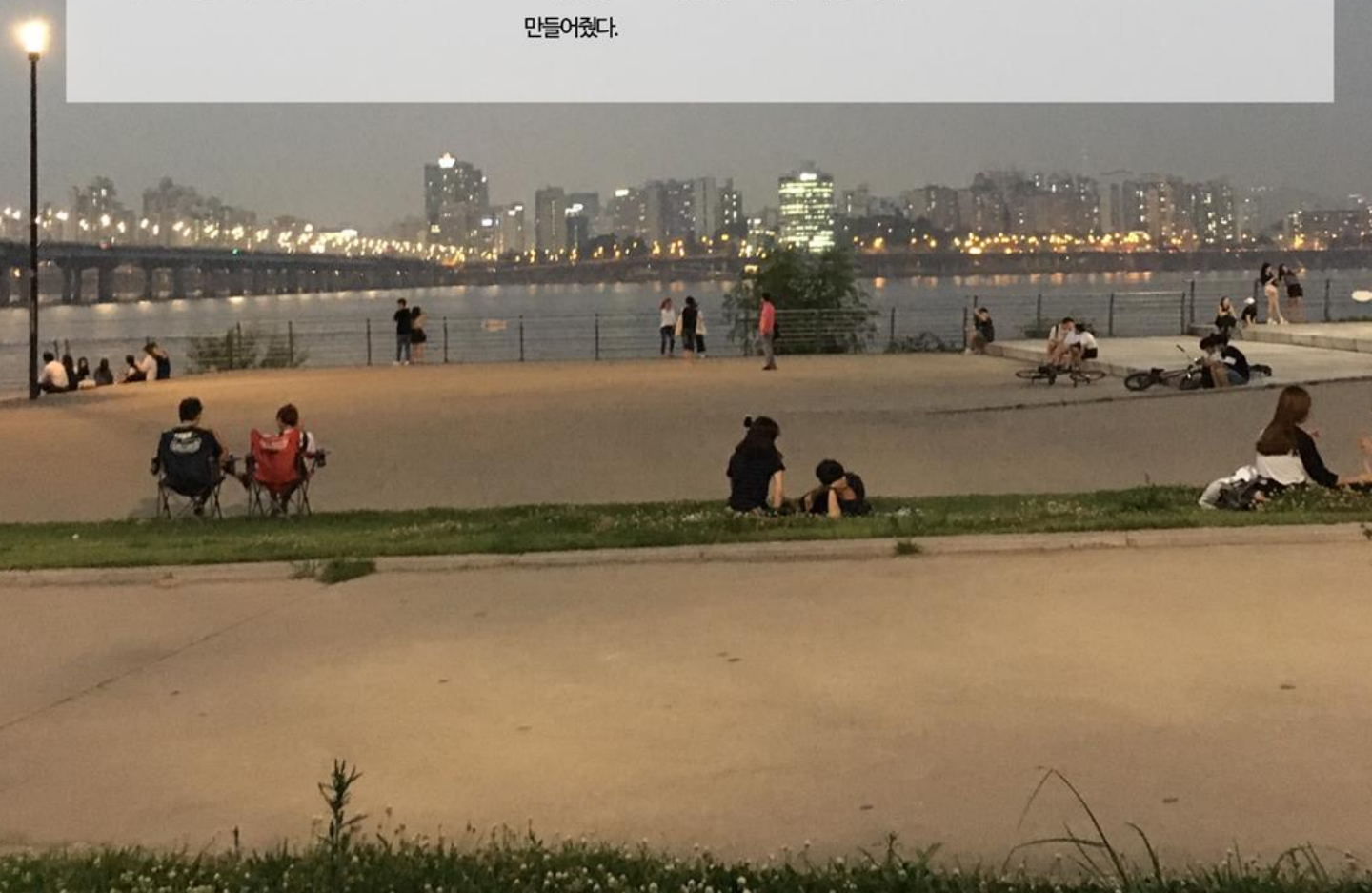
‘똑같은 일상에 지친 나에게 주는 값진 서울여행’ 17학번이나현

이번 연휴는 일주일 이넘는 꽤나 긴 연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연휴를 조금 더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향 친구를 찾았다. 나는 그곳에서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 서울에서의 그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직까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나는 아침 8시 30분쯤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타 약 4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도착했다. 장시간 기차를 타서인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이 몰려왔다. 기차역을 빠져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나는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친구가 사는 동네로 갔다. 지하철 안에 들어서니 그제서야 서울에 온 것이 확실히 실감났다. 들려오는 말소리의 억양과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옷 스타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무언가 서울을 표현하는 것 같았고 겨우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라 그런지 우리는 점심식사내내 이야기를 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지난 고등학교시절을 소재로 삼아서 한참 대화하다보니 서울에 있는데도 고향에 온 것만 같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거리도 사람들도 모두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신기하고 앞으로 남은 서울여행을 더 기대되게 하였다. 나는 이번 서울 여행에서 한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저녁노을이 질 때쯤 집을 나서 한강에 도착하니 시원한 강바람이 오래 지하철을 탄 나에게 지친 몸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야식을 먹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로 한강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땀이 조금씩 나는 날씨 탓에 한껏 바람을 맞으려 자전거를 탔다. 빌딩숲가운데 흐르는 강물과 불어오는 바람이 어울리지 않는 조화였지만 그 나름대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

정신없이 놀다 지쳐 끝날 여행이라 생각했건만 몸도 마음도 힐링되었던 여행이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 있는 동안 시간가는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긴 연휴 동안 보냈던 시간 중에 서울에서의 시간은 고향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값진 것 같았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여행을 다녀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해서 말이다.



'내 꿈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었던 소중한 연휴'



5월 4일 목요일

오늘은 재량휴업일이지만 중간고사로 인해 미뤄진 U리그 5라운드 대구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의 경기 취재를 위해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평소엔 아침잠이 많지만 경기가 있는 날은 항상 눈이 일찍 떠진다. 신기하다. 준비를 끝내고 안동터미널로 가서 표를 끊고 바로 버스를 탔다. 잠깐 النوم 감았는데 일어나보니 동대구터미널에도 도착해있었다.

도착하자마자 DUF MEDIA 초대 편집장 선배님 차를 타고 대구대학교로 향했다. 정문엔 있는 모녀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삼겹살김치담뱃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조금 쉬다가 미팅을 시작했다. 오늘도 나의 취재 포지셔닝은 서브포토다 경기시작하기 30분 전쯤 경기장으로 향했다. 막상 또 촬영을 하려고 하니 떨렸다. 항상 떨린다.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나도 같이 움직이며 촬영을 했다. 전반전이 끝나고 부랴부랴 벤치로 가서 렌즈를 교환하고 감독님과 선수들의 미팅영상을 찍었다. 다시 후반이 시작되었다. 1-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대 박남수 선수가 골을 넣고 2-1이 되었다. 그때 하필 난 골대 왼쪽에 있어서 선수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아쉬웠다. 2-1로 경기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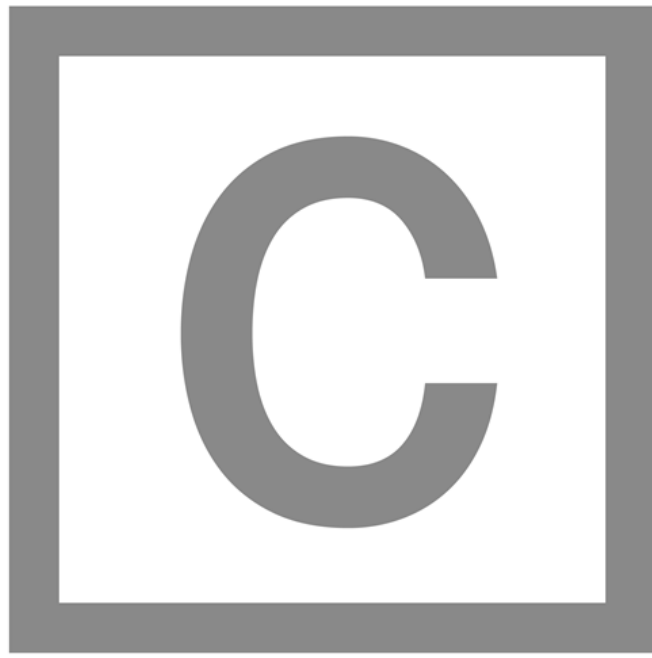
대구대는 경북 10권역에서 2위를 탈환하였으며 선수들과 기분 좋게 브이로 승리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까지 촬영을 했다. 끝나자마자 모여서 잠깐 회의를 가지고 편집실로 가서 사진 셀렉과 편집을 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다. 아직도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열린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겠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알아가도록 하자 파이팅 유지는! 편집을 다하고 바로 사커스토리 녹음을 하러갔다. 난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일명 축알못이라서 대본을 보고 진행한다. 전날 밤 대본을 적었지만 기숙사에 노트북을 두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무대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영차! 영차! 오늘도 열심히 등산을 합니다! 산으로 가는 축구이야기 사커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할 때 마다 숨이 찬다. 무대본이라서 그런지 자꾸 중간에 끊겼다. 언제쯤 대본이 없이도 진행을 잘 할 수 있으려나 싶다. 그래도 녹음은 재미있게 끝났다. 녹음은 할 때 마다 즐겁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해야 할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축구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 녹음을 끝내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뽀뽀했다.

수고했다지애!

5월 6일 토요일

나는 2년 전부터 경북대구권역 고등축구리그를 보러 다니고 있다. 경북대구리그를 보면서 사진 촬영도 꾸준히 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3월 말에 2번 경기를 봤다. 4월은 바빠서 경기를 보러가지 못해서 내가 운영하는 SNS 페이지 '경북대구리그' 에 경기결과만 올렸다.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경북대구리그를 촬영하러 갔다. 오랜만에 간 청송 군민운동장은 너무 반가웠다. 도착하자마자 반겨주시는 경북축구협회 관계자님들과 심판님들 덕분에 항상 기분이 좋다. 오늘은 3경기 연속으로 촬영했다. 마지막 경기 때는 조금 힘이 들어서 조금만 찍고 앉아서 쉬었다. 심판님들랑 수다를 떨면서 경기를 보았다. 재밌었다. 아침부터 계속 서있었던 탓인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이 따끔따끔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사진을 기다려주는 선수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분 좋게 촬영을 마무리했다. 축구협회 관계자 분께서 감사하게도 집까지 태워주셨다. 집에 가지마자 역시 뻘어버렸다. 나는 5월의 황금연휴를 축구와 함께 보냈다. 축구편에서 내 이름만 말해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향한 노력과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앞으로도 꼭 많은 경험을 하고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하자!



Communicating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다.
혼자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검열해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함께 외쳐주는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법

퀴어로 정체화하는 일은 꽤 어려웠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같은 ‘여성’에 끌림을 느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 그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 부정해야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반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좋아하는 남학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관심 없는 학우의 이름을 뱉었다. 중학교 때도 바뀐 것은 크게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꼈다. 역시나 그 사람은 같은 성별을 가진 반 친구였다. 생각이 많았던 18살, 나는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정했다.

이처럼 사회가 지정해준 ‘여성’인 성별을 가진 내가, 같은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은 가슴에 굉장히 무거운 큰 돌을 하나 얹고 사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나의 끌림,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나의 존재는 사회는 물론 나에게서부터 끊임없이 검열되고 지워져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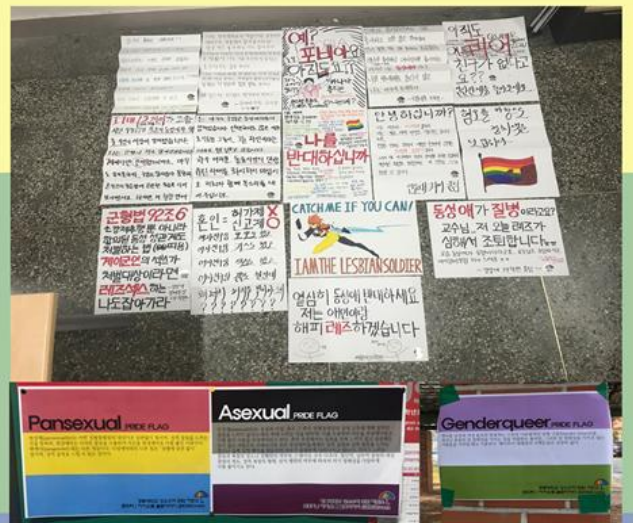
2016년 3월, 지인의 소개로 고민 끝에 퀴어 동아리에 가입했다. 나는 겁이 많았고 동아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연대한다는 것임은 알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직도 퀴어 동아리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 편이다. ‘웃 벗기기 게임하는 곳 아니냐’는 기상천외한 질문도 들어왔다. 퀴어 동아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소수자들 간의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본인의 프라이드 향상을 꾀할 뿐만 아니라 꾸준한 정기 모임과 스터디, 이벤트 등으로 회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대외적인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활동 및 외부와의 교류(타교 모임 행사, 참석, 연합 MT 및 세미나 참석 등)으로 그 활동 범위가 넓혀가고 있다.

나의 퀴어 동아리 이야기

퀴어 동아리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아무래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프라이드다. 앞서 말했듯 오랜 시간 혼자라고 생각해 왔기에 나를 숨기고 감추기를 바빴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나를 받아들이게 됐다. 예전에는 ‘너 여자 좋아해?’라는 질문이나 학과 내 아웃팅으로 마음 졸이고 초초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는 퀴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다음의 큰 변화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혐오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공기처럼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던 여성혐오나 습관처럼 입 밖으로 뱉던 병신, 지랄 같은 장애인 혐오 발언까지.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의 부조리한 일을 깨닫고 맞서 함께 힘이 되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한 포스터 부착 활동, 대구시국대회에 퀴어페미존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에서는 사적인 일이 있어 참여를 하지 못했던 ‘나도 잡아가라’ 대자보 활동과 같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다. 혼자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검열해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함께 외쳐주는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Hosting



사랑·빛·자유의 소리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교육방송국 DUBS 실무국장 여은주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방송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터라 대학생이 되면 교내 방송국에 입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있었는데요. 입학 후 때마침 수습기자 모집 현수막을 보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떨리는 수차례의 면접 끝에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 수습 기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바라왔던 것이기에 '어떤 일을 줘도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지!' 했는데 개인적인 일과 방송국 일이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곤란할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지내왔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DUBS 수습기자 생활을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실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한편으로는 조직의 대표 자리에 있다는 게 걱정되고 큰 부담으로도 느껴지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며 임하려 합니다. 우리 DUBS 기자들을 대표해 있는 자리인 만큼 국원들이 활동하는 무대를 넓혀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께는 신속·정확·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무엇보다 소통하는 DUB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속한 DUBS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학교 기관에 속해져 있는 언론사이며, 저를 비롯해 보도부장과 실무기자 4명, 수습기자 8명까지 총 14명의 국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DUBS는 신속·정확·공정을 교훈으로 학우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눈과 귀가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수·목요일 오전엔 8시 20분부터, 매일 오후엔 6시 10분부터 방송마다 30분간 진행되는 교내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등하곳길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전 방송에서는 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보도 방송을, 오후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고, 학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기획해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명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팟캐스트 '청춘을 위한 고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학기 말에 '방송제'라는 게 열리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교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DUBS 기자들이 이날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DUBS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학보사는 학우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학보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우분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방송국이라고 해서 딱딱한 이미지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제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한 마디 한 마디 잘 새겨듣는 DUB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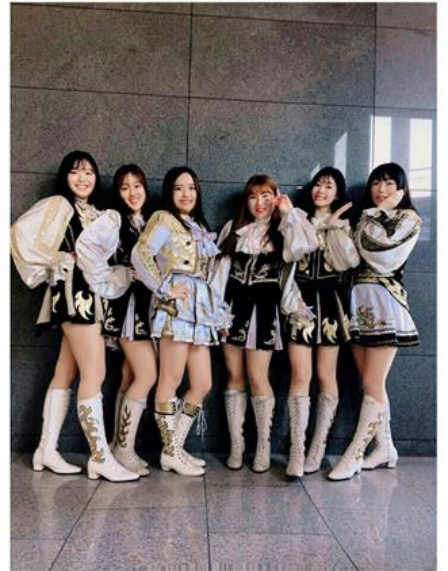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22대
날아보자 비호응원단 단장 김다은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좀 특이한 동아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가두' 모집 때 비호응원단을
입단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춤 실력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입단을 포기했었는데요. 우연히 보게
된 비호응원단의 U리그 응원전 무대를 보고 갑자기
응원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너무 멋있었고
응원이라는 열정이 무대를 통해 느껴졌거든요.
응원단을 하면 정말 멋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
대기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입단하고
싶다고 한 뒤 입단하게 되었답니다. 비호응원단은 1996
년도에 창단하여 올해로 22주년이 되는 역사 깊고 전통
있는 응원단입니다. 모든 대구대인이 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가지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 22주년 비호응원단을 소개합니다!

입단한 뒤에는 외적으로는 크게 액션치어리딩과
스탠트치어리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액션 치어리딩은 손을 쪽쪽 접었다 폈다 돌렸다
하고 발은 쉬지 않고 뛰는 동작들이 액션 치어리딩
입니다. 그리고 스탠트 치어리딩은 사람들 들어서
던져서 받고 올리고 마치 서커스에서 곡예를 하는듯한
모습이 연상되는 동작이 스탠트 치어리딩입니다! 작년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때 처음으로 스탠트 치어리딩
곡을 선보였는데요. 그 때 날아올랐던 플라이어 역할이
바로 저였답니다.



저희 비호응원단은 전국대학교응원단연합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매달 함께 모여 회의도 하고, MT나 체육대회를 가기도 하면서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고, 인맥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및 교외 행사를 나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문화교류단으로 파견되어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행사는 매년 학교 축제 기간에 비호응원단이 주최해서 하는 '비호 응원 대제전'입니다. 저희 비호응원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응원단도 함께 와서 무대를 꾸미고, 재미있는 이벤트 무대도 하고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공연도 볼 수 있는 응원단 한해 통틀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기 단장으로 선출된 뒤 언니·오빠들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가장 와 닿았던 말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목표를 높게 잡고 큰 공을 세운 뒤 이름을 날리는 멋진 단장도 좋지만, 20년 넘게 이어져 온 비호응원단이라는 전통을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단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깊게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년 동안 한자리 해 먹는 단장이 아니라,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멋진 응원단! 앞으로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단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응원단을 하고 싶지만, 입단을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입단비나 단복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 춤 실력이나 몸매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 2학기라서 새로운 단원은 안 뽑을 거라는 생각... 심지어는 남학생이라서 안 될 거라는 생각마저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오디션도 보지 않고 개인적인 돈 드는 행사도 일절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식자리에서도 회비를 걷지 않아요. 신입생들은 1년 내내 상시 모집중입니다! 그리고 남학생들도 할 수 있는 멋진 액션치어리딩 동작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열정만 있다면 입단할 수 있다는 점! 망설이지 마시고 웅지관 1506호로 언제든지 와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비호응원단 페이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국민이 된다면

■ 중·고등학교 때부터 또래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보통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고등학교 시절 학교 공부보다는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해 1~2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토론했다. 그렇게 2~3시간 정도 열띤 토론을 하면 끝엔 항상 “이문제를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마무리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것보다 쉽게 마무리를 위해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막상 그렇게 뱉어도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거나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무엇보다 “내가 한다고 과연 사회가 바뀔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행동하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컸다.

■ 2016년 9월부터 갑자기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기 시작했다. 양파같은 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 터진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은밀한 사안까지 알린 점, 정경유착, 검찰비리, 공직자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전세계가 한번에 주목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분노했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촛불이 하나씩 들켜졌다. 촛불은 비람 불면 꺼진다는 말에 햇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 앞에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촛불의 목소리를 들은 정치인과 법조인들은 움직였고 전대통령은 탄핵되었다.

■ 이 과정에서 국민은 스스로 깨달았다. 자신이 정치에 무관심했고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권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신중해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를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선 과정은 어느 때보다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TV 토론도 열심히 시청했고

어렵지만 많은 공약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스스로 찾아보기도 했다.

그 결과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26.06%를 기록했다.

1천 107만 명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 관련 명언 중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플라톤의 명언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에 대해 먼 미래라고 생각하며 외면한다면 대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라는 거다.

전대통령의 국정농단처럼 국민은 그런 식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자신의 권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고 조금씩 정치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태솔로가 죄의심?

모태솔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다.

특정 나이가 지나도록 제대로 연애를 못해본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리거나,

마법사가 된다는 속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다 연애 경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을까?

스물하고도 n년째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다는 익명 여성의 말을 잘 들여다보자.

글: 윤유미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모태솔로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연애를 한 번도 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안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못한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안 한 거라고 해주세요. (웃음) 연애 감정도 느껴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짝사랑을 10대 때 4년, 20대 때 2년 할 정도로 길게 하는 편이라. 근데 그런 감정들이 좀 무뎠어요. 스물 초반까지만 해도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젠 정말 없어요.

사실 드라마나 우리 결혼했어요(우결) 같은 예능 덕분에 연애에 대한 환상이 생겨 연애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연애를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일단 우결, 님과 함께, 설레는 드라마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중간고사를 다 치고 보면 휴일 동안 설레는 드라마의 설레는 장면들, 우결도 특정 커플의 에피소드만 골라 재방송으로 봤어요. 그런 설레는 감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감정을 제 주위의 사람한테 별로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연애 주관이 제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걸 주위에서 통 느끼질 못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아, 설렌다!'고 느끼지, 어떤 환상을 가져서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대외활동 등 많이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곳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없나요?

그냥 이성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돌멩이가 된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사실 최근에 누구에게 설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당시에 설레긴 했지만, 그 설렘이 너무 무뎠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확실한지에 대해

스스로 따져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나 더 깊어질 것 같은 마음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외면하다 보니 그 감정들이 담담해지는 느낌? 계속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엄격해져서 '그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닐 거야'라고 혼자 되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모태솔로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왜 여태 연애 한 번 안 해봤냐'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지 않은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모태솔로는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 연애를

그 기준점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대체 어떤 기준으로 모태솔로들이 주위의 동정 어린 시선들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오히려 연애를 너무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연애경험이 전혀 없는 모태솔로보단, 연애를 많이 해 본 나 같은 사람들이 낫다'고 말하려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연애를 하지 않으니,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래시나요?

사실 별로 외롭진 않아요. 원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영화든 쇼핑이든 뭐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드라마나 예능을 봐도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외로움을 느낄 때는 너무 예쁘게 사귀고 있는 커플을 볼 때 느껴요. 특히 우리 학교 내에서 예쁘게 사귀는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을 볼 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는 외로움을 따로 달래진 않아요.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그래, 나 외로워. 그렇다고 어찌겠어.' 혼자 이러는 거죠. (웃음) 우울한 노래를 듣거나, 사랑 노래 중에서도 이별 노래 많이 듣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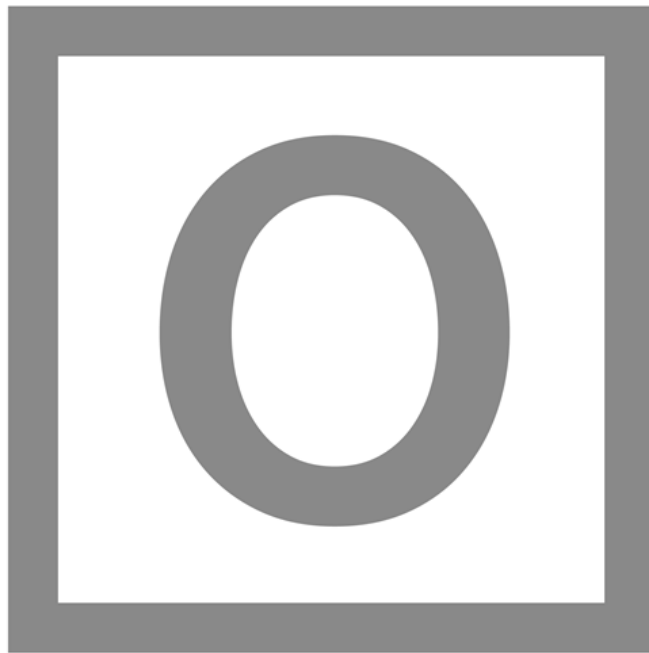
앞으로의 연애는 어떻게 바라시나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않아서 무리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편안한 연애를 추구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학 입학하고 들은 말 중에 일말삼초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1학년 말부터 3학년 초까지 연애를 못 하면 더는 대학 생활에서의 연애는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 이유로 3학년 2학기까지 노력했는데 지나버려서 다시 대학 졸업 전까지 연애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제 곧 졸업이니까. 얼마남지 않아서 결국 좀 늦었어요. 스물다섯까지로. (웃음)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연애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왜 모태솔로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안타깝고 불쌍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도 아닌데. 게다가 그 시선이 싫은 이유 중 하나는 이성을 만날 때 모태솔로면 가볍게 보기도 하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분명히 연애하기 전 탄다는 '쌈'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 '연애를 몇 번 해봤냐'는 질문에 괜히 모태솔로라 하기 싫어 '한두 번 정도는 해봤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결론 내려서 절 미리 판단할까 봐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칭송받거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Outreaching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안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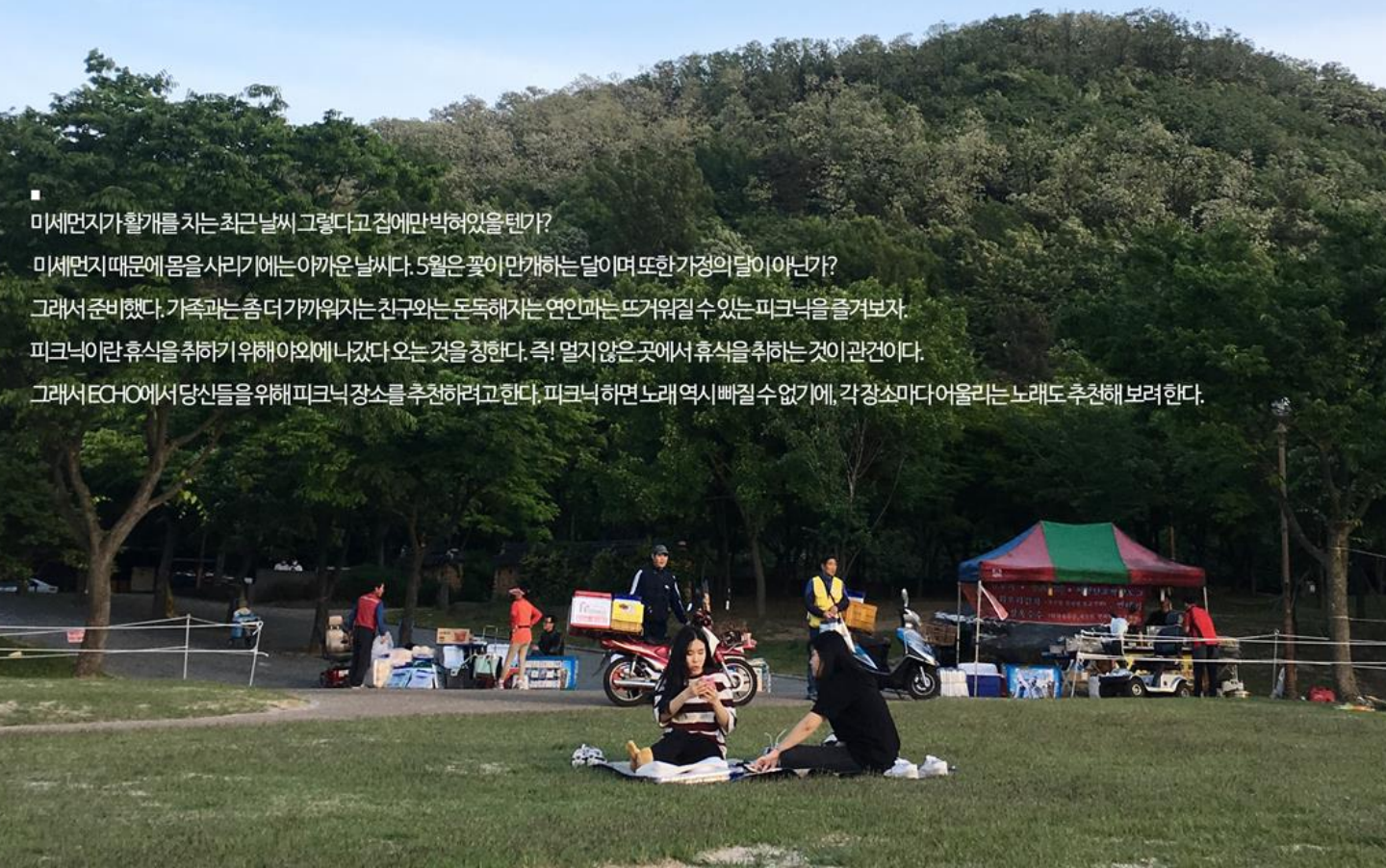
■ 미세먼지가 활개를 치는 최근 날씨 그렇다고 집에만 박혀있을 텐가?

미세먼지 때문에 몸을 사리기에 애까운 날씨다. 5월은 꽃이 만개하는 달이며 또한 가정의 달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했다. 가족과는 좀 더 가까워지는 친구와는 돈독해지는 연인과는 뜨거워질 수 있는 피크닉을 즐겨보자.

피크닉이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야외에 나갔다 오는 것을 칭한다. 즉! 멀리 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ECHO에서 당신들을 위해 피크닉 장소를 추천하려고 한다. 피크닉하면 노래 역시 빠질 수 없기에, 각 장소마다 어울리는 노래도 추천해 보려한다.



#1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두류공원을 올라가면 야외음악당이 보인다.
여유로운 기분으로 천천히 두류공원을 올라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웃으며 올라가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두류공원의 생기가 느껴진다.
야외음악당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펴고 누워서 여유를 즐긴다.
평소 일 때문에 지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야외음악당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간다.
드넓은 잔디가 펼쳐진 야외음악당은 많은 수의 사람이 자리를 펴고 있을 정도이다.
야외음악당의 묘미는 역시 배달음식을 뺄 수 없다.
도시락을 굳이 싸오지 않더라도 차킨을 시작으로 다양한 배달음식을 맛볼 수 있다.
낮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겼다면,
해가 진 오후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밤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유쾌하게, 노인분들은 흥겹게, 가족들은 즐겁게 그 분위기를 즐긴다.
야외음악당에서는 가끔 공연을 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야외음악당에서 시원하게 우거진 잔디와 나무, 꽃을 보고,
배달음식을 통해 입을 즐겁게 하고, 공연을 들음으로써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야외음악당으로 와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분위기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악동뮤지션 - 길이나

야외음악당을 올라가며
설렘을 나타내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있을 법한 일들을 가사로 적어서
연애 감정을 솔솔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가사에 시각적인 면을 구사하여야
외음악당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티스토리-백미탄양자

#2 아양교역벚꽃터널

대구의가볼만한곳으로 꼽히는 아양교역 아양기찻길,
 특히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 유명하다.
 아양기찻길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벚꽃터널.
 평소 야경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곳이다.
 건너편에 보이는 벚꽃터널의 알록달록한 색감은 동심을 자극한다.
 때때로 아양기찻길에서 뷰 갤러리를 하기도 한다.
 아양교역 아양기찻길은 예전 기찻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옆으로 빠지는 공간이 있어서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기 좋다.
 밀이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아양 교기찻길 카페는 한쪽에는 '모캄보'가 있고, 한쪽에는 '코나' 카페가 있다.
 벚꽃터널을 가기 위해 아양교역에서부터 걸어와서 아양기찻길 카페를 지난다.
 이 길을 그냥 통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양뷰 갤러리,
 디지털 다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비록 벚꽃은 다 졌지만, 건너와서 봐도 언제나 매력적인 야경은 끝내준다.
 벚꽃터널 시작 지점 바닥에 영상물이 틀어진다.
 남녀노소 친구, 혹은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아양 교기찻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스탠딩에그 - 알로하

잔잔한 노래의 선율이
 아양 교기찻길을 걸으면서
 듣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가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빠르지 않은 리듬과
 아양 교의 분위기를 매치시키면 좋을 것 같다.

#3 수성못

수성 못의 낮은 지금 5월 형형색색의 꽃이 만개했다.
 못이 가까이 있기에 뜨거운 햇볕에 흘린 땀을 시원히 말려주기도 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수성 못의 경치를 즐긴다.
 대구의 아름다운 밤을 볼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면 이곳을 빼먹을 수 없다.
 수성 못의 낮도 예쁘지만 밤에 보는 야경은 절경이다.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 빛나는 조명, 수성 못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차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버스킹, 공연과 분수 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또한 수성 못의 수성 랜드는 연인, 친구와 함께 가서 사진을 찍기 좋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 많으며 수성 못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역시 준비하다.
 수성 못에서 식사를 즐긴 후 수성 못의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O - 낮 보다는 밤

특유의 청량한 분위기의 노래가
 수성 못을 거닐며 듣기에 좋다.
 또한 가사의 낮 보다는 밤이라는 가사는 수
 성 못의 밤의 야경을 비유하는 말 같기도 하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 피부에 막을 만들므로
피부에 자극이 적지만 백탁현상이 있음

OLIVE  YOUNG

올리브영 장기 알바생이 추천하는 선크림

이미 다가워진 해, 게다가 곧 다가올 무시무시한 여름을
대비해 자외선 차단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1년 이상 '올리브영'이라는
드럭스토어에서 일한 알바생이 추천하는 선크림!
필자의 피부에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추천했으니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한다.

먼저 간단하게 **SPF 지수**와 **PA 지수**를 알아보자.
SPF 지수는 **자외선이 차단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1당 약 15분을 차단해준다. PA 지수는 +로 표시되는데,
+의 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매장에서 판매율이
높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을 꼽아 직접 써보고
추천했기 때문에 테스트는 꼭 사용해보고 구매하길 바란다.

01



식물나라 산소수 피팅 선크림
(SPF 50+ / PA +++) 60mL
12,800₩

아웃도어, 데일리 겸용. 베이스 겸용
선크림이라 피부톤 보정,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 가능.
유기자차보다 약한 발림성이지만,
유분감이 덜해 피부톤 보정,
번들거림을 둘 다 잡고 싶어 하는
남성고객들이 선호. 유분감도 같은
브랜드 자외선차단제에 비해 적고
베이스 겸용이라 밀착력도 좋은 편

02



식물나라 산소수 마일드 선크림
(SPF 50+ / PA +++)
12,800₩

아기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음.
발림성이 나쁘지도 않고 촉촉함.
흡수만 잘 시켜준다면 백탁현상도
심하지 않은 편. 저렴한 가격에
조금이라도 순한 선크림을 바르고
싶다면 추천!

03



차안박 마일드 카밍 선로션
(SPF 50+ / PA ++++) 50mL
28,000

무기자차 100% 제품, 백탁현상 심함
물리적인 차단만 되기 때문에 다른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
저자극. 브랜드가 유명해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제품, 그만큼 제품력은 좋음

04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
 (SPF 50+ / PA +++) 50mL
 28,000

무기자차 100% 제품. 성분 자체가
 좋고 무기자차라서 아이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이 적은 제품.
 발림성이 생각보다 많이 백백하지
 않은 편

05



아벤스 트레오프프로텍시옹 선
 레앙팡
 (SPF 50+ / PA +++) 100mL
 32,000

피부가 많이 민감한 사람들이 찾는
 제품. 몸부터 얼굴까지 다 바를 수
 있어서 용량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많아 3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들도
 바를 수 있는 저자극 제품



화학적 자외선 차단, 발림성 등
 사용감이 좋으며 백탁현상이 없음

06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데이 선
 플루이드
 (SPF 50+ / PA +++) 100mL
 29,000

발림성이 좋아 수분 많은 로션을
 바르는 느낌. 유분감도 적어
 남성고객들에게도 인기.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 하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는 제품

07



식물나라 산소수 라이트 선 젤
 (SPF 50+ / PA +++) 60mL
 13,800

닥터자르트 제품이랑 사용감과
 제형이 거의 흡사. 화장할 때
 베이스화장이 밀리는 게 신경
 쓰이거나, 얼굴에 도는 유분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대로
 많이 찾는 제품. PA지수 4로 차단은
 잘되지만, 유기자차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테스트 필요

08



보타닉힐 보 워터풀 선 에센스
 (SPF 50+ / PA +++) 50mL
 18,000

‘올리브영’에서만 판매하는 브랜드
 식물나라 만큼 가성비 좋은 유기자차
 선크림으로 인기 많음. 에센스 같이
 묽은 제형이고 당연히 발림성도 좋음
 PA지수 4로 한여름에 꼭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

09



센카 미네랄 퍼펙트 UV
(SPF 50+ / PA +++) 40mL
15,000

센카는 ‘파란색 클렌징폼 브랜드’
라고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리퀴드 제형이라서 엄청 묽고 바른
느낌도 적어 남성에게 인기!

10



비온드 오미션 1+1 기획세트
(SPF 50+ / PA +++)
50mL+50mL 17,000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완벽한 유기자차, 백탁현상 없고 매우
촉촉함. 조금의 번들거림 있음.
건성 피부는 화장 전 바르면 수분감,
유분감이 둘 다 있어 겨울용으로
괜찮음. 선크림을 자주, 많이 바르는
사람들에게도 추천

11



에너지팩토리 멀티 아웃도어
선크림
(SPF 50+ / PA +++) 70mL
18,000

남성 전용 선크림으로 추천.
흔들어서 써야 하는 리퀴드 타입마저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흡수 빠름, 향도 남성들의 취향 저격!

추천은 여기까지!

아마 위의 제품들 중에서는 혼합자차(유기자차+무기자차)도
있겠지만, 둘 중 조금 더 가까운 성분으로 분류했다.
자신의 피부가 딱히 민감하지 않고, 백탁현상이 싫은 사람은
유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화장품 성분에
민감하다면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
매장마다 입점 되어 있는 상품도 다르고, 재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처 매장에 전화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혹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올리브영에서 1년 훨씬 넘게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콘텐츠로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
다음에도 다른 제품 추천 글로 만날 수 있길!

언제까지 벚꽃엔딩만 들을 거야, 재즈 추천기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즐길 시간이 없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친구의 말을 빌려본다.

그와 나는 거의 비슷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나는 도통 저 문장을 공감해줄 수 없다.

일상 속에서 매일 여유를 즐기는 나에게 재즈는 필살의 무기가 있기 때문일까.

언제 어디서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흘러오는 재즈를 듣노라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공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아마 음악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유독 재즈는 나에게 더욱 특별한 선물 같다.

봄이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가 벚꽃엔딩을 외칠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속으로 봄바람 휘날리는 도입부를 흥얼거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 따뜻하고 고요한 봄밤, 당신에게 재즈를 선물하고 싶다.

Ps. 11곡의 재즈에 번호를 매겨두었다. 꼭 순서대로 듣지 않아도 좋지만,

차례대로 들어도 상관없다. 각자 곡에 맞는 (a - b - c) 단계를 구성해보았다.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이따분하고 정처없이 흘러가는 봄날 재즈와 함께 여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여 행동하시라

Let's talk about that jazz vibe



1. naomi&goro - concil meetin'

a: 갑자기 찾아온 한가한 오전

b: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c: 달고 차가운 라떼 한잔 손에 쥐고 바람 쐬기. (행복 끝판왕)



2. 캐롤 ost
- easy living

- A: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 오후
- B: 추워서 우연히 들어간 카페
- C: 주변 사람들의 각자 사연을 몰래 상상해보기



4. Stacey Kent
- the face i love

- A: 고요한 새벽
- B: 이유 없이 잠에서 깨서 밤의 적막과 마주치는 곳.
- C: 가만히 노래를 들으며 외로운 새벽을 위로받는다.



6. Olivia Ong
- quiet night and quiet stars

- A: 겨울 밤새가 나가기 시작한 11월
- B: 즐거거는 카페에서
- C: 몇 계절을 함께 보낸 연인과 마주앉아 익숙함과 권태 그사이의 감정을 느낌.



8. Mateo Stoneman
- la gloria ares tu

- A: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오후에
- B: 항상 혼자 걸던 길에서
- C: 문득 낯섦과 외로움을 느낀다.



10. Ken Peplowski Quartet
- spring will be a little late this year

- A: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
- B: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그 혹은 그녀의 집에서
- C: 맥주 한 캔을 더 권해본다. (긴장감과 어색의 그미묘한 분위기를 뚫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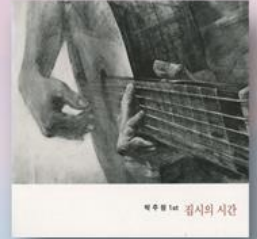
3. 박주원
sweet amore -

- A: 월요일 아침
- B: 힘들게 몸을 일으킨 침대에서
- C: 창문을 연다 (의외로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음)



5. 박주원
서울 불레로-

- A: 개강을 맞이한 봄 그 어느 날
- B: 화장실 거울 앞에서
- C: 얼마전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약속을 앞두고 외출 준비하는 중



7. Michael Buble
dream a little dream of me-

- A: 밤공기가 시원한 초여름
- B: 집 앞 편의점 벤치에서
- C: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로망을 이야기한다



9. 전람회
j's 바에서-

- A: 부모님의 존재가 작아짐 느끼는 나이가 됐을 때
- B: 어떤 공간에서든
- C: 부모님과 가볍게 술을 마시며 그들의 청춘 이야기를 들어본다.



11. Justin Hurwitz
Casey's Song-

- A: 한 주의 아쉬움이 가득한 일요일 저녁
- B: 스탠드 조명으로만 분위기를 낸 방에서
- C: 평소 아껴뒀던 영화를 준비해놓고서 (세상 행복)

